

NOV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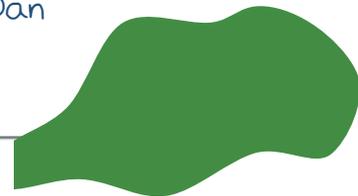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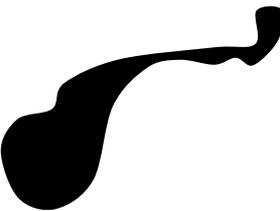


19기 베트남팀  
강예진 김나은 원민석 조은솔 최인혁

# 베트남팀의 11월 스케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지훈 경구간사님 방문	2 1대1 면담
3 지훈 경구 간사님과 데이트	4 승철간사님 방문, 중간 보고회	5 승철간사님과 데이트	6 Ky Quang	7 Thao Dan	8 Ky Quang	9 Thao Dan
10 San과 마지막 저녁식사	11 Ben Tre 여행	12 Ben Tre 여행	13 Ky Quang	14 Thao Dan	15 Ky Quang	16 Thao Dan
17	18 워터파크	19	20 Ky Quang	21 Thao Dan	22 Ky Quang	23 Thao Dan
24 와인파티	25	26	27 Ky Quang	28 Thao Dan	29 Ky Quang	30 Thao Dan



# 침과 재정비의 달이었던

## 11월 보고서 목차

### 01 중간격려, 그리고 그 후

- 지윤, 경구, 승철간사님과 함께한 중간격려 보고회
- 중간격려 이후 달라진 우리의 모습

### 02 침의 달 11월

- Ben tre 여행, Dam sen 워터파크
- Good Bye San, 잘 가 산!

### 03 YSD와의 소통

- 메인 코디네이터 교체 이후
- 서로 다른 기준과 각자의 요구사항

### 04 아띠 프로젝트 진행상황

- 어쩌면 당연했던 ATTI Project
- 고민될 땐, GO!
- 앞으로의 계획

### 05 우리들의 이야기

- 헐 얼굴 대박, 찢어 찢어
- 우리의 뇌구조
- 개인에세이

## 01 중간적려, 그리고 그 후

- 지윤, 경구, 승철간사님과 함께한 중간 보고회
- 중간적려 이후 달라진 우리의 모습



# 간사님이 베트남에 오셨다~~~~

1. 중간격려, 그리고 그 후

중간격려 방문기간 : 11월 1일 ~ 11월 5일

공식 중간보고일 : 11월 4일

중간격려 방문팀 : 이지윤(한국YMCA전국연맹 팀장), 강경구(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윤승철(안산YMCA 간사) 총 3인

평화롭고도 평화롭지 않은 나날을 보내던 도중 간사님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VIETMEN 팀, 많은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고 한다...

중간격려 준비로 바빠진 우리 팀은 PPT, 3분 가량의 동영상, 개인에세이를 몇 날 며칠동안 고생하며 열심히 준비하였다

(발표 사를 전 한국어가 아닌 영어 발표임을 알게 된 우리는 부랴부랴 모든 PPT와 발표 스크립트를 번역했다. 파파고야 수고했다!^^)

01

지윤, 경구  
간사님  
베트남 도착!

02

지윤간사님과  
1대1 면담

03

Hang out  
with 지윤,  
경구 간사님

04

승철 간사님  
베트남 도착!

대망의  
중간발표회

05

Hang out  
with  
승철 간사님





# 간사님들과의 추억 with 지윤간사님, 경구간사님



## 통일궁

베트남에 3개월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 살며 많은 활동을 해 왔지만  
정작 이 국가에 대해 무지하다고  
생각이 든 우리,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알아보러  
간사님들과 통일궁을 갔다.



## 82년생 김지영

마침 11월 1일  
베트남에서도  
'82년생 김지영'이 개봉하여  
함께 보러 갔다.

(보러 가기 전 혹시  
베트남어 더빙이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아니었다하)



## 고기 무한 리필집

베트남에 와서 모든 멤버가 가장  
그리워 했던 고기..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간사님들과 같이 푸파 하러  
고기 무한 리필집으로 가~

간사님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간사님들과의 추억 with 승철간사님



## 중앙우체국

우체국은 이미 VIETMEN끼리 갔었지만 당시 너무 밤이 늦어 잘 둘러보지 못하여 다시 찾은 우체국!!

안에 들어가서 각종 기념품도 사며 구경했다.



## 노트르담 성당

승철간사님이 떠나시기 하루 전 우리는 마지막 여유를 즐기며 호치민을 더 둘러보기 위해 노트르담 성당에 갔다!!



## 대만 푸전요리

승철간사님이 밥을 사 주신다는 소리에 정신을 놓아버린 우리들... 미치도록 음식을 시킨 후 음식 나오기 전 한 컷~

간사님 잘 먹었습니다!!!

# 간사님, YSD의 Feedback과 변화한 우리

## 중간격려 feedback



## 중간격려 이후 변화한 우리

-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자.  
(무엇이 라온아띠인지 생각 해보자)
-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 우리들의 잘못된 점만 생각하지 말고 잘한 점을 생각하고 서로에게 칭찬하자.
- YSD에게 말하고 싶은 바는 정확히 말하자.
-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우리들의 베트남 생활을 즐기자!!!!!!

- 이웃주민들과 인사하기 시작했다. 늦은 인사지만 모두 따뜻하게 받아 주신다. 하루는 대량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다섯집에 나눠드렸다.
- 모든 팀원의 의견이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진행하던 회의방식에서 다수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긴 회의 시간에 지쳐 있던 팀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었다.
- YSD의 Wendy, Peter, Kiet과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입장, 쌓아왔던 불만, 요구사항을 나눴다.
- 11월, 정기봉사가 없는 휴일을 이용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았다.

We are not workers,  
Let's enjoy our Vietnam life !!!!!!!!!!!!!!!

## 02 쉼의 달 11월

- 번째 여행, 워터파크, 와인파티
- Good Bye san! 잘 가 산!



# Ben tre trip 벤째여행

1박 2일간 메콩강이 있는 벤째로 떠나요!



태풍을 뚫고 떠난 여행

처음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2시간에 걸쳐 벤째로 향했다. 시끄럽고 북적이는 호치민과 달리 한적하고 고요한 환경이 우리에게 낯설었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박물관

1시간동안 걸어서 도착했다. 관광객은 우리들 뿐이었고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야시장 첫 방문

처음으로 로컬시장을 둘러보았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 비릿한 냄새, 저렴한 과일과 야채, 먹거리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 Ben tre trip 벤제여행

## 토막상식!

메콩강은 중국에서 발원하여 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아주 기~다란 강입니다!



### 과일 사기 도전

버디에게 배운 베트남어를 써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막과 막과, 잠자 쵸 엠 띠~(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가격 흥정도 해보면서 맛있는 망고와 꿀을 샀다. 1kg씩 샀는데 그날 다 먹었다 X



### 메콩강

몇 시간동안 걸어서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잠깐의 휴식을 주었다. 우리는 메콩강의 저 멀리 붉게 물든 노을을 닳을 놓고 바라 보았다.

생각했던 스펙타클한 여행이 아닌, 여유롭고 편안한 여행이었다. 첫 여행이라 서툰 것도 많았지만 함께 걷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 스스로 무사히 잘 다녀온 것에 대해 큰 뿌듯함을 느낀다☺



### 해산물 Party!

베트남에 와서 처음으로 해산물을 먹었다. 조개, 오징어, 볶음면, 볶음밥 등 다양한 요리를 맛 볼 수 있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먹었다. 다들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 담선 워터파크

## Dam Sen Water Park

2019. 11. 18 (월)

### 첫 워터파크 방문!

이 날만큼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정도로 정말 원없이  
놀았다.

오픈부터 폐장할 때까지 모든  
어트랙션을 빠짐없이 다 탔다.

### 정말 자~알 놀았다!

배가 아플 정도로 웃고, 서로  
장난치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가 된  
것만 같았다.

다음 목표는 놀이공원이다 ><

# 소소한 일탈

District 1 와인 가게를 찾아서 - 2019. 11. 24 (일)

킹재이(은솔)가 와인을 사준 날이다.

우리가 살던 구역을 벗어나 다리를 건너 District1으로 갔다. 서양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전혀 다른 느낌의 분위기를 가진 거리였다. 우리가 찾아본 와인가게가 단혀서 네덜란드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와인가게에 들어갔다.



치즈와 피자, 편의점에서 산 주전부리와 함께 와인을 마셨다. 로제, 화이트, 레드 와인을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버렸다.

알콩달콩한 네덜란드 부부의 모습, 빔 프로젝터로 보이는 축구 경기, 작은 컨테이너, 신나는 음악소리, 함께 잔을 치던 그 때를 잊지 못할 것이다!

# Good bye, 산! 우리의 버디, San과의 이별 - 2019. 11. 10 (일)



버디 San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함께 피자도 먹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많은 추억을 나누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Buddy로서 우리와 소통하려 노력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도와줘서 고마울 뿐이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여서 이 보고서를 볼 지도 모른다!  
산 피자집에서 울었다고요~~~ 얼얼얼얼얼러~~



그 곳에서 건강하게, 즐겁게 잘 살길 바래  
잘 지내 San 😊  
꼭 SM 취업해서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



## 03 YSD와의 소통

- 메인 코디네이터 교체 이후
- 서로 다른 기준과 각자의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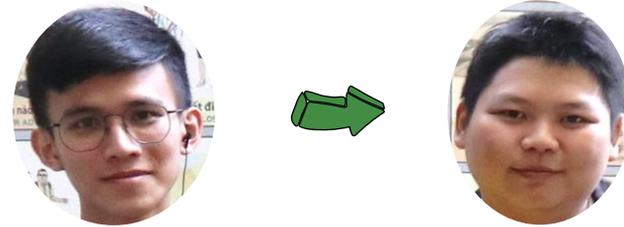


# 현지 호스트 기관, YSD 메인 코디네이터 교체



본래 VIETMEN팀을 관리해주시는 YSD  
이해관계자는 총 여섯 명이였다

- Mr. Danh 안 : 프레지던트
- Ms. Wendy 웬디 : 슈퍼바이저
- Mr. Viet 비엣: 메인 코디네이터
- Mr. Kiet 끼엣: 두 봉사기관 담당자
- Peter 피터: 하우스 키퍼
- Jannie 제나: 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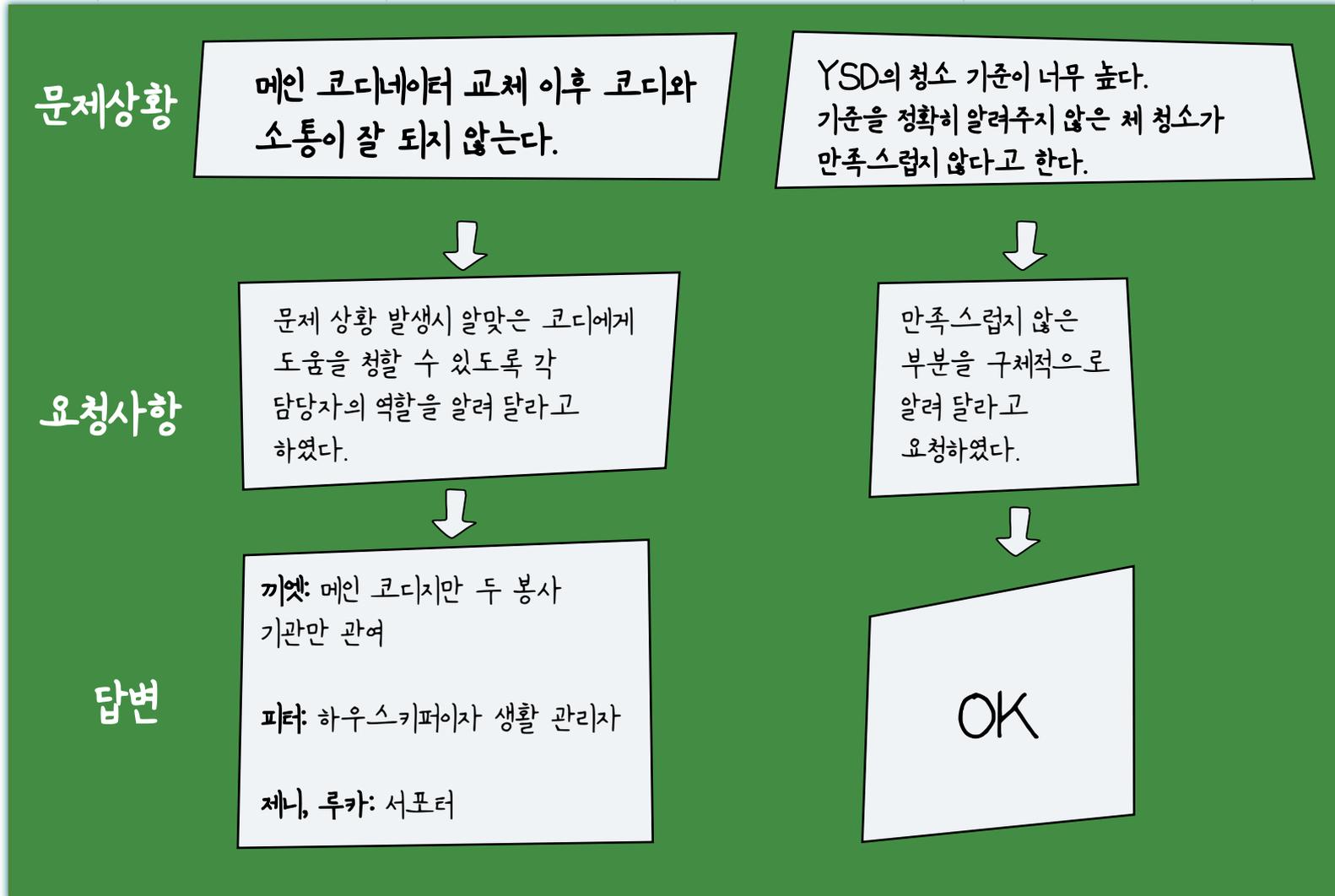
메인 코디네이터 교체

그러나, 유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Viet 비엣이 메인 코디를 그만두게 되자 두 봉사기관의 담당자였던 Kiet 끼엣이 메인 코디네이터가 된다.

그 후 우리는 각 YSD 멤버들의 역할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끼엣은 여전히 봉사기관만을 책임졌고 하우스 키퍼인 피터가 우리의 생활을 관리했다. 가끔은 버디의 리더인 루카가 우리를 관리해주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YSD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각자의 요구사항이 쌓여갔다.  
우리는 Ms. Wendy와 미팅을 잡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상황

YSD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시 항상 하우스키퍼인 피터를 통해 이야기 한다.

우리와 두 봉사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담당자인 끼엣이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다.

요청사항

피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야기 하길 요청했다.

12월부터 정기봉사가 끝나지만 타우단 선생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으며 우리와 버디에게 화를 내셨다.

답변

프레지던트 양과 메인 코디인 끼엣은 다른 일로 너무 바빠 생활 방면에서 관리해줄 시간이 없다. 앞으로 피터가 대신 전해줄 것이다.

12월, 타우단에서 도서관 만들기 활동이 종료되는 즉시 봉사를 종료하기로 약속했다.



## ATTI PROJECT

### 04 아띠 프로젝트 진행상황

아동권리 증진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 PCR PROJECT

# 1. 어쩌면 당연했던 ATTI project

## ATTI project 주제 선정 배경

우리팀이 베트남 생활에서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은 Ky Quang Pagoda이다. 키왕파고다는 VIETMEN팀이 3개월 이상 '장애 아동 돌봄 봉사'와 '비장애아동 교육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아띠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가 되었을 때 팀원들의 머리 속에는 자연스럽게 키왕이 먼저 떠올랐다. 때문에 아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픈 기관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  장애아동 돌봄 봉사 〉



〈  비장애아동 교육 봉사 〉 

# 1. 어쩌면 당연했던 ATTI project

## ○○ 문제 발견과 주제선정

키왕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3개월 이상의 봉사 활동으로 키왕 파고다의 여러 문제점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위생문제

모기를 비롯한  
해충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간식

장애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편적인  
교육의 부재

놀거리의  
부재

초상권침해

안전

아동폭력

이러한 문제들의 교집합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모두 아동과 관련 되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아띠스러운가', '필수적인가', '현실가능한가'라는 기준을 가지고도 주제선정을 고민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KY Quang Pagoda기관 내의 '아동 권리 증진'을 주제로 선정할 수 있었다.

# 1. 어쩌면 당연했던 ATTI project

## ○○ 타겟과 주제의 구체화



- 파고다에서의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기관의 아동들을 더욱 자세히 관찰 할 수 있었다.
- 팀원 간의 토의 결과 우리의 프로젝트가 더 필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타겟은 장애아동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 때문에 주 타겟은 '장애 아동'으로, 주제는 '장애아동의 권리 증진'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 ○○ 1차 기획안

프로젝트 기획 초반 '아동권리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했다.

때문에 '장애아동 교실 대청소', '신발장 제작', '장애아동 천장보수공사'의 세가지 활동으로 의견이 좁혀졌었다.

하지만 대청소는 VIETMEN팀의 활동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 판단되었고, 신발장 제작은 타겟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일부 교실에만 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천장 보수는 **아미가 주체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 ○○ 2차 수정 기획안

아미스러움, 프로젝트가 타겟에게 미치는 영향, 현실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프로젝트를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생각했고 수번의 회의에 걸쳐 활동을 수정했다.

[2차 수정된 활동]

1. 봉사자 매뉴얼
2. 아동 특성판
3. 미끄럼 방지 스티커
4. 커튼 설치

### ○○ 3차 수정 기획안

[3차 수정된 활동]

1. 봉사자 매뉴얼
2. 아동 특성판
3. 미끄럼 방지 스티커
4. 놀이터 설치
5. 화장실 분리 공사

앞으로 **N차**의 회의와 활동 수정이 남았다...☺

## Dự án KOVI: một ngày ở Kỳ Quang

Xin chào.  
Chúng mình là nhóm KOVI bao gồm các sinh viên Hàn Quốc và Việt Nam. Chúng mình đã đưa ra các biện pháp giải quyết và khắc phục để xây dựng cho các trẻ em khuyết tật môi trường sống với chất lượng sống tối ưu.  
Xin hãy đọc các nội dung bên dưới và tích cực nhận xét cho chúng mình nhé. Xin cảm ơn.

### <1. Bảng hướng dẫn dành cho tình nguyện viê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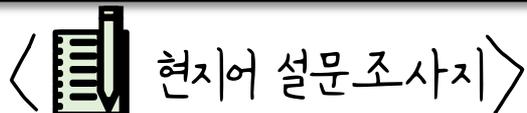
Nội dung	Lịch trình thường nhật (cách sử dụng các vật dụng, làm sao để dọn dẹp và cho các bé ăn, vận văn...).
Nguyên nhân	Các tình nguyện viên nước ngoài nhận thấy sự khó khăn của việc thực hiện lịch trình thường nhật do rào cản ngôn ngữ giữa các tình nguyện viên nước ngoài và giáo viên địa phương trong lớp học của trẻ khuyết tật.
Mục đích đạt được	Giúp cho các tình nguyện viên hiểu rõ hơn về vai trò của bản thân ở Kỳ Quang và hoàn thành nó tốt hơn. Hơn nữa còn giúp giảm thiểu vấn đề rào cản ngôn ngữ trong việc giao tiếp với nhân viên người Việt và dẫn đến việc chăm sóc kỹ lưỡng, tận tình hơn cho các trẻ.

Hãy trả lời câu hỏi dưới đây (1: thấp nhất 5: cao nhất)

Độ hài lòng	1	2	3	4	5
Tại sao bạn lại chọn mức độ này?					

## 설문조사&인터뷰

- 우리의 프로젝트가 타겟에게 필요한 것인지 알기 위해 **현지어로 설문조사**를 준비했다.  
(현지어 설문조사는 KOV팀 내 현지 버디의 도움을 받았다.)
- 매일 장애아동교실에서 일하시는 5명의 현지 선생님의 설문 결과 그리고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관 담당자인 Mr. Hai와의 미팅을 진행했다.
- 설문조사는 관계자의 ‘프로젝트 활동 선호도 조사’를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로젝트의 활동이 타겟에게 실제로 필요한지 알기 위해 진행되었다.



### 설문조사 결과

설문결과, 장애아동교실 선생님 대부분은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5점 만점에 4점 혹은 5점의 만족도를 표현 해주셨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샤워후나 환복 시 커튼을 설치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 해주셨다.

설치할 공간이 부족할 뿐더러 기부나 후원이 많이 필요한 키왕의 시스템상 기관 홍보를 위해서는 기관의 활동이나 처한 상황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셨다. 때문에 우리는 '커튼 설치 활동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 설문조사 결과 정리표 >

	1 <sup>st</sup> person	2 <sup>nd</sup> person	3 <sup>rd</sup> person	4 <sup>th</sup> person	5 <sup>th</sup> person
(1)	4 Because of language barriers, international volunteers and staffs don't understand each other.	5 It's hard to take care of children well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s between volunteers and staffs.	5 Because the languages are different so it's difficult to work together, especially in some problems like taking care, feeding or taking shower for children.	5 It's difficult for volunteers to work because they don't know Vietnamese language.	5 Although volunteers can understand a little bit what the staffs say, they still make some mistakes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s.
(2)	5 Because volunteers can get to know the kids much better	5 When volunteers know about the characters, name and habits of children, they can work much better.	5 If volunteers know well about habits, hobbies of each child, they can take care of them much better.	5 The more volunteers know about the hobbies and habits of children, the more they can get to know them better.	5 It's easier to take care of the kids if volunteers know about the habits and hobbies of them.
(3)	1 It's not necessary, because the children are disabled and the space is not wide enough.	1 It's not necessary because the children are all disabled and the room is not spacious.	1 Unnecessary! Because these children are disabled, and the rooms are so narrow.	1 It's not really necessary.	1 Unnecessary.
(4)	5 It's very necessary for disabled children.	5 We should install it to prevent children from unexpected accidents.	5 It's necessary.	5 We should install it	5 We should do it for the safety of children.
(5)	5	5	5	5	5

## 2. 고민될 땐, Go!

## 4. 아미 프로젝트 진행상황



### 키왕 파고다 구석구석 답사하기

설문조사 이후 Mr. Hai와의 미팅을 가졌다. 그는 평소에 자신이 기관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직접 보여주며 우리의 활동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기관의 곳곳을 답사했으며 프로젝트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 고대하던 ATTI project 활동 확정!

이해관계자와의 설문조사, 미팅, 인터뷰, 답사 이후에도 ‘화장실 분리 공사’와 ‘놀이터 설치’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논의 거리였다. 키왕 파고다 장애아동의 삶에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위생**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했고, 때문에 ‘화장실 분리 공사’가 ‘놀이터 설치’ 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아띠 프로젝트의 활동으로는 아래의 네 가지가 확정되었다.

활동	목적	활동 내용	기대효과
봉사자 매뉴얼	1. 키왕파고다의 장애아동은 위생과 안전을 비롯하여 인권에 기반한 보살핌을 제공 받는다.	하루 일과표를 제작하여 봉사자가 봉사지의 일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봉사지에서 봉사자가 지켜야 하는 태도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기록한 매뉴얼을 제작한다.	봉사자가 봉사지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한다. 국제 봉사자와 현지직원 간 언어적 요소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
아동 특성판		아동의 특성을 관찰하여 관찰일지를 작성한다. 이후 아동 특성판을 제작하여 벽면에 부착한다.	봉사자는 아동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아동 개개인의 특징에 맞춰 알맞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미끄럼 방지 스티커	2. 국제 봉사자와 현지직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한다.	미끄럼 방지 사고 방지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화장실 분리 공사	간의 소통의 장벽을 해소한다.	설거지하는 공간과 배변 공간을 분리하고 장애아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한다.	아동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봉사자가 맡은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3. 앞으로의 계획

**VIETMEN team**은 아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후원봉사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활동이 그저 기부 활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팀원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의 활동에 있어 **아띠스러움**을 녹여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나 프로젝트 활동 중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미리 고안하여 제시할 것이며,  
모든 진행상황과 돌발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띠 프로젝트 기획과정의 대부분은 11월에 마무리되었으며, 12월에는 본격적인 진행과정이 시작된다.

**아띠스러움을 지키면서,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한달이 되기를 바란다.

12월도 즐겁게! 고생할? 우리를 위해...cheers😊



## 05 우리들의 이야기

- 혈 얼굴 대박, 찢어 찢어!
- 우리의 뇌구조
- 개인есе이

# 강예진

서로 얼굴 그려 주기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실사



팀원들이 그려준 예진이

-528점

예진의 한 줄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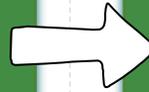
응~ 너네 아띠 플젝 밤샘각이다...^^(채찍질 준비 완료)

# 김나은

서로 얼굴 그려 주기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실사



팀원들이 그려준 나은이

나은이의 한 줄 평  
이번달은 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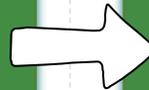
30점

# 원민석

서로 얼굴 그려 주기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실사



팀원들이 그려준 민석이

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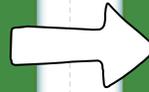
민석이의 한 줄 평  
방귀 킴 87

# 조은솔

서로 얼굴 그려 주기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실사



팀원들이 그려준 은솔이

은솔이의 한 줄 평

고오오오오맘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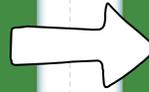
50점

# 최인혁

서로 얼굴 그려 주기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실사



팀원들이 그려준 인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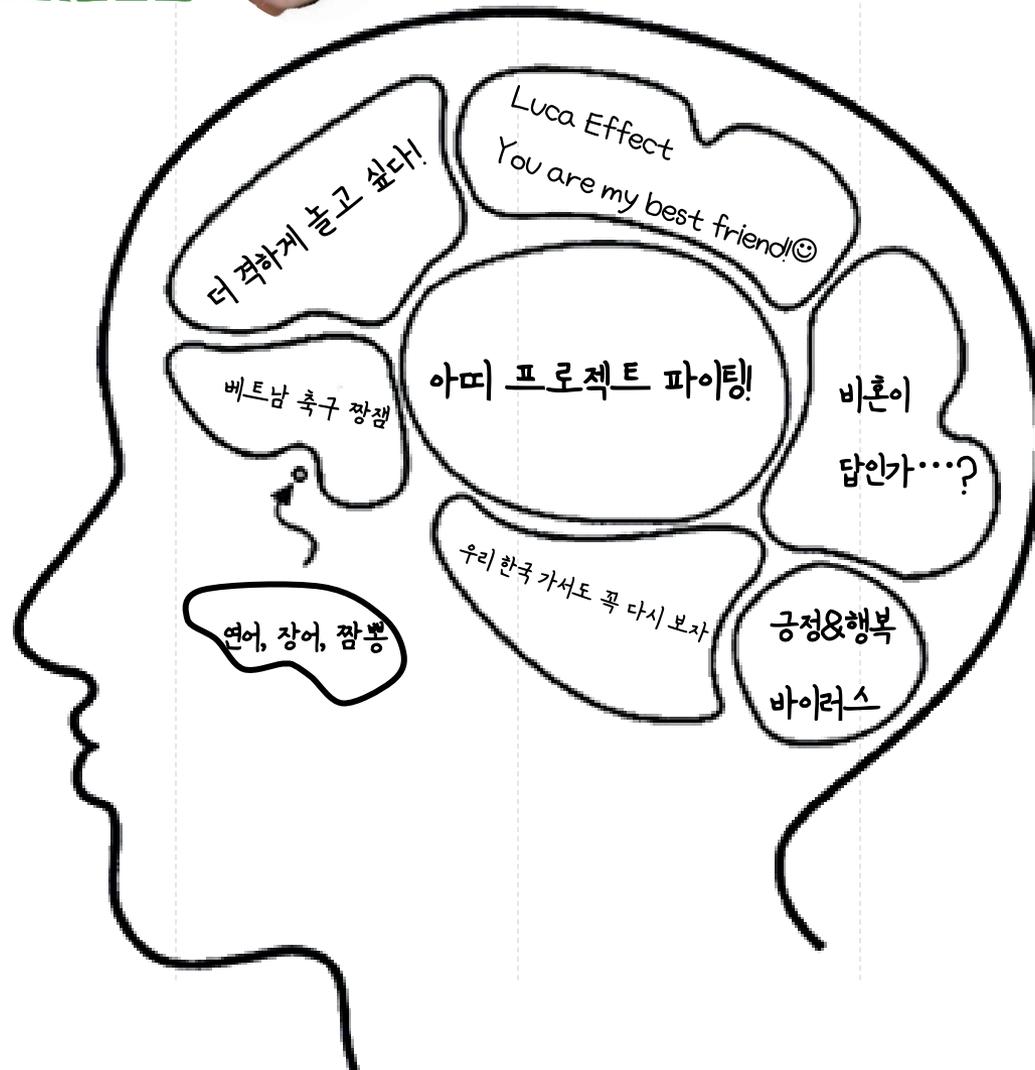
5점

인혁이의 한 줄 평  
지금까지 고마웠다.

# 예진의 뇌구조



# 베트남은 나의 제 2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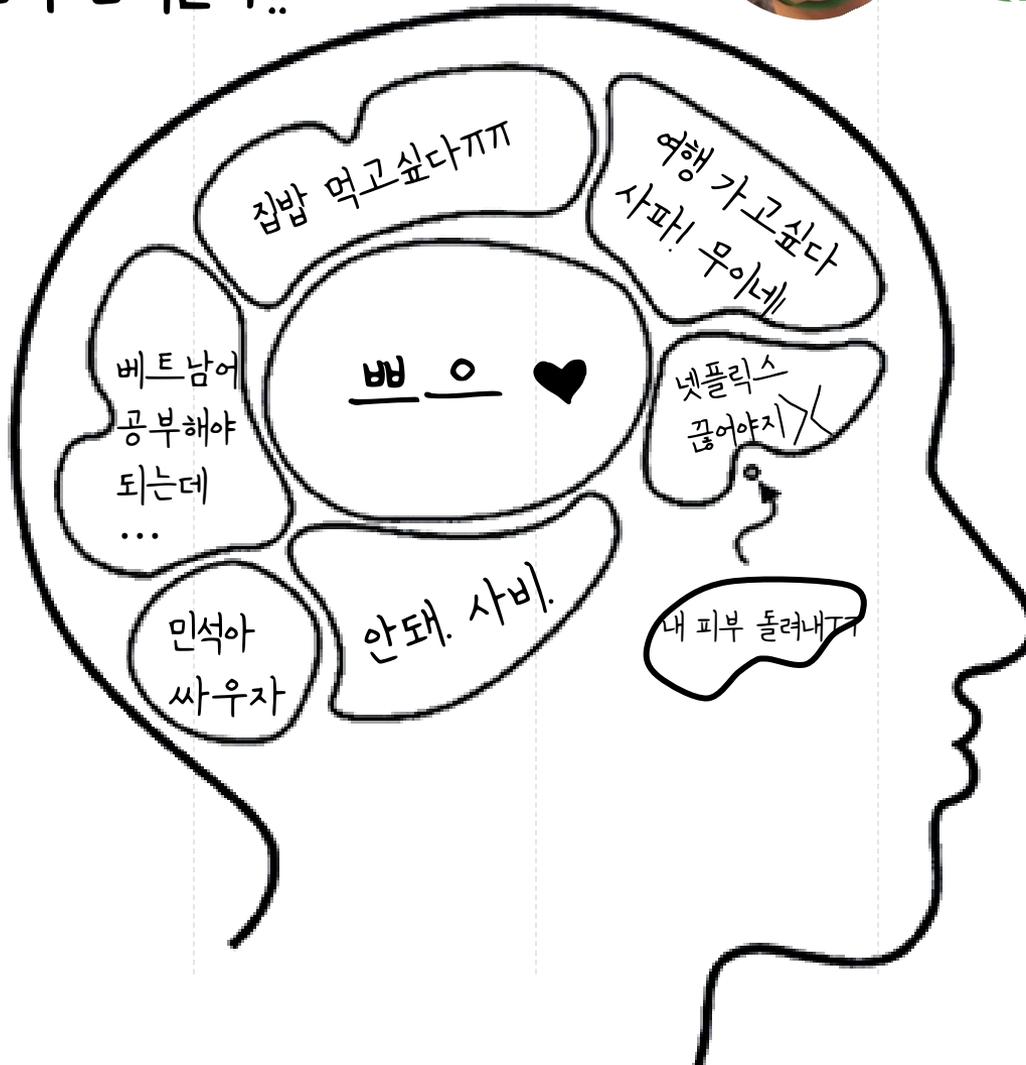


001

설레기도 하고 깜깜하기도 하다.  
확실한 건 두근두근거린다!!



# 나은이의 뇌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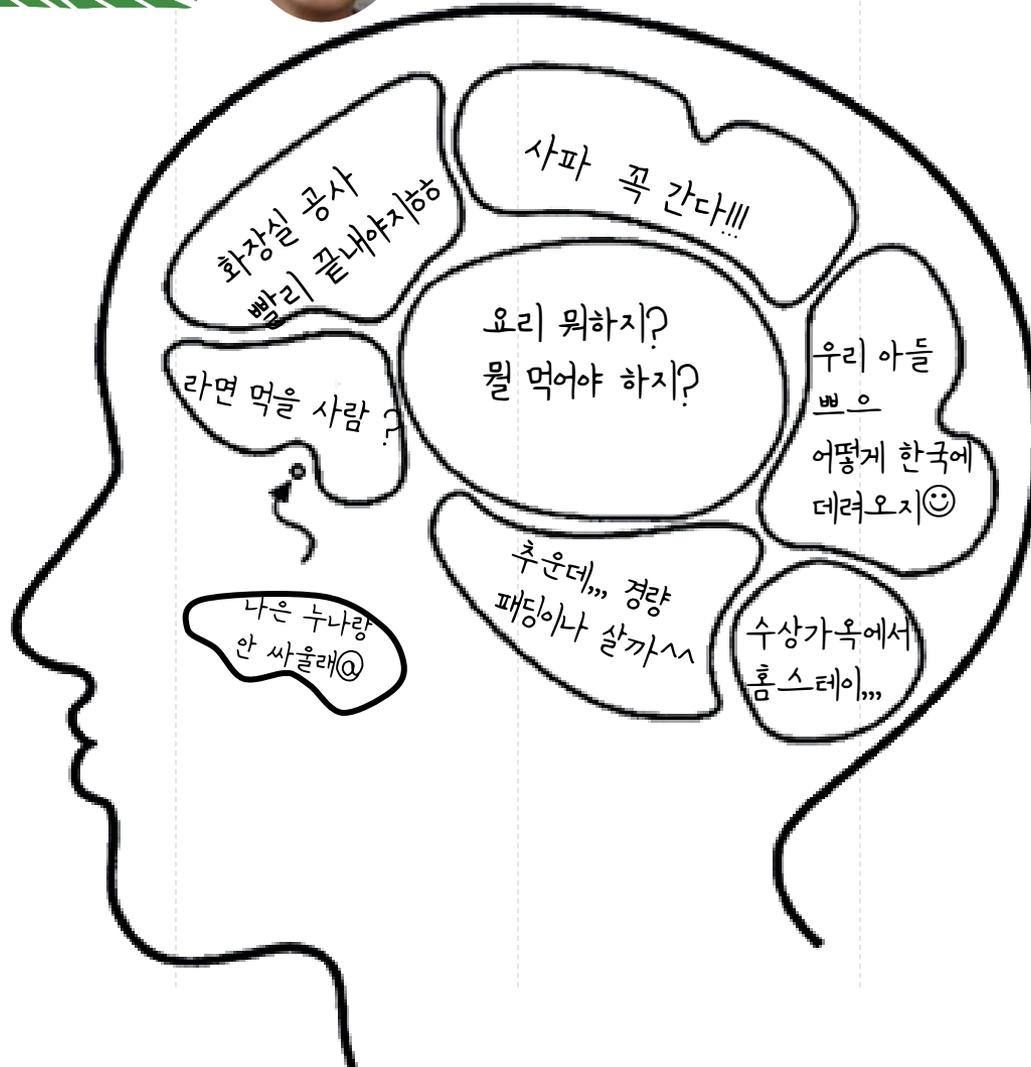


# 민석이의 뇌구조



## 이등병의 편지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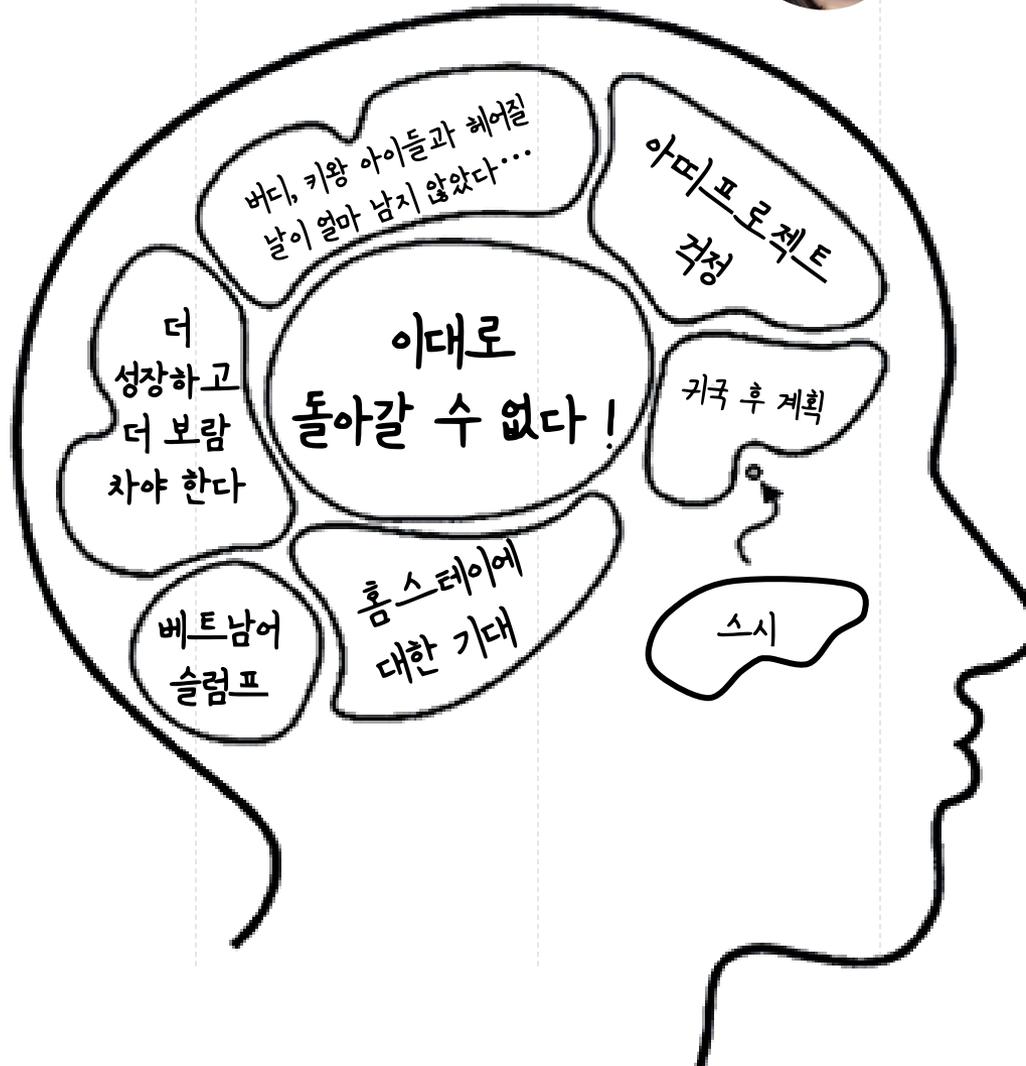


# 이대로 한국에 돌아간다면 후회할 거야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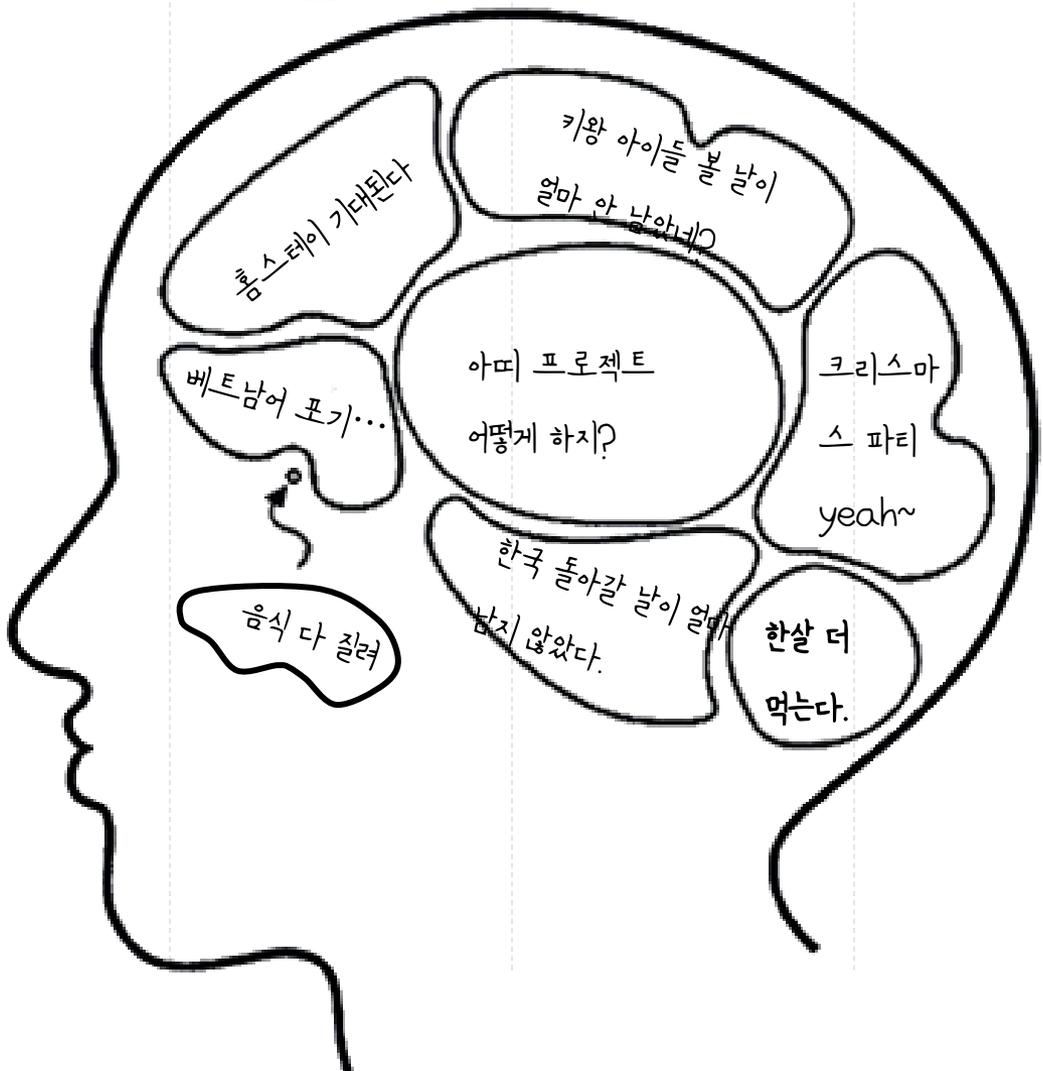
은솔이의 뇌구조



# 인혁이의 뇌구조



한 살 더 먹는다.



005

## 안녕 11월 안녕 12월?

몇 달간의 베트남 생활을 잠시 돌아보자면 재밌기도 했고, 조금은 화난적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생각보다 단순한 사고 방식을 가진 내게, 마냥 즐거울 것만 같은 베트남 생활에서 11월은 조금 힘들었다 느껴진다.

사실 11월이 가장 많이 쉬었던 달이다. EPC는 끝났었고, 중간 평가회도 종료됐으며, 중간 격려 이후 내가 내려 놓을 부분을 인지했고, 그만큼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쉬'를 많이 가진 달이다. 하지만 왜 인지 11월은 힘들었다.

나는 어떤 것이 힘들 때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짐어 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곳은 베트남이고 나는 아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지금까지 힘든 일에 대한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면 지금부터는 해보려고 한다. 그게 내가 아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생각한 원인에는 먼저 '총무'가 있다. 난 내가 총무를 맡은 것이 불편했다. 팀원 모두를 먹여 살릴 돈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으며, 돈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내가 총무라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게 신경 쓰였고, 나에게 안 맞는 옷을 입은 듯했다. 때문에 11월은 조금 고된 달이었다.

11월의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였을까? 되돌아 보자면, 11월은 즐거운 일들이 정말 많았다. 번째 여행(즐거웠나...?), 워터파크, 와인바, 마사지, 겨울왕국 영화, 고기튀피, 82년생 김지영, 공포영화 7편! 많이 놀았고, 많이 먹었다. 참 잘 한일인 것 같다. 나는 내가 있는 매 순간을 온전히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다. 스스로에 대해서 더 탐구할 수도 있었으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도 서로를 믿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변을 돌아보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았고 12월도 즐겁게! 힘차게! 사랑하며! 보내고싶다 😊



## 봉사를 마무리하며

9월, 10월에 봉사하던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 매우 지치고 힘들어하고 얼른 이 일을 끝내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서 그런지 아이들을 더 오래 보고싶고 아쉬운 마음이 크다. 새로운 봉사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어리둥절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곤 한다. 아이들과 어울려 함께 놀고 서로의 얼굴에 웃음이 보일 때면 우리도 제법 잘 적응했구나하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안고, 밥을 먹이고, 샤워하고, 놀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이전 익숙해짐을 느낄 때 뿌듯함을 느낀다.

Ngon

첫 날, 외국인 봉사자들만 장애아동교실에 배정되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졌다. 비장애아동이 아닌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회피하고 싶어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 정말 깊이 반성하며 이 아이들을 만나 큰 행복이었다. 나에게 많은 감정들과 웃음, 배움을 주어서 감사하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길 간절히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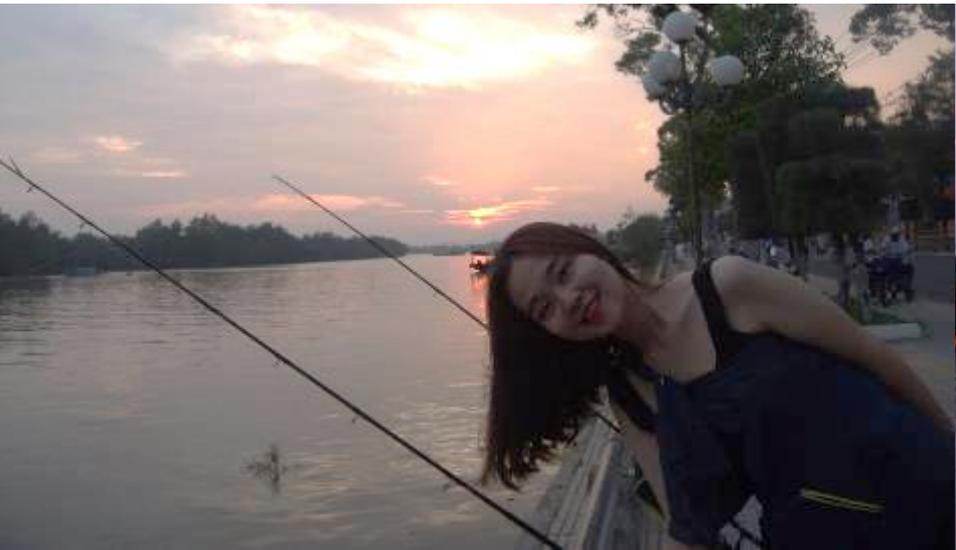
## 관계

‘이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 다르게 살아온 인생들이 모여 맞추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예전의 나는 싸움이 두려워서 먼저 회피하고 참아오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스스로 부딪히고 싸우며 내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싸움의 과정을 통해 나를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치거나 상처를 받을 때도 많다. 그러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여전히 나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내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강하게 잘 싸우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 나

나보다 남부터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 느리다. 여유로운 것을 좋아한다. 마음이 여리다. 잘 운다. 소비하며 휴식을 즐기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갖는다. 하늘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자연을 사랑한다. 하고 싶은 것이 많다.(춤 추기, 가야금, 수영, 제빵, 스쿠버다이빙, 요리, 그림, 언어), 돈이 다가 아니다. 현재에 충실한다. 솔직하다. 표정을 숨길 수 없다. 산책을 즐긴다. 매일 일기를 쓴다. 꿈을 자주 꾀다. 생명을 소중히 한다. 내가 누군인지 항상 고민한다.



봉사도 익숙해지고 베트남 생활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생활이 이제는 쫘 여유로워졌다.

길을 가다가도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팀원들과 재밌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주어진 것 같다. 먹을 것을 대박 좋아하는 팀원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역시나 다양한 음식을 만들거나 먹으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이야기도 나누며 재미를 찾아간다,, 나쁘지 않았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것도,, 여기 와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더더욱 그런 것 같지만 하루하루 재미있는 일들을 찾으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다.

나는 요리를 하면서 가장 많은 행복을 느낀다. 내가 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고 밥그릇도 깨끗하게 비워주는 팀원들은 보며 뿌듯하기도 하고 입꼬리를 감출 수 없다. 그래도 잘 먹어주는 것을 보기보다 직접 하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이 된 것 같다. 요리하면 할수록 다양한 요리에도 도전해보고 싶고 스스로가 더 잘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보고 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이처럼 하루에서 재밌는 부분을 조금씩 찾으려 하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달리고 있는 중이다! 아뵤 프로젝트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급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즐기며 다가가서 더 파이팅넘치게 활동할 것이다.

*Khoi*



## 이대로 한국에 갈 수 없다

내가 그간 꿈꿔온 해외봉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걸 느끼고 배워야 하는데 그건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라온아띠는 그저 기회를 제공할 뿐, 모든 것이 새로운 이 환경 속에서 5개월간 무엇을 보고 경험하며 얼마큼 성장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의 노력에 달려있었다. 이대로 한국에 돌아간다면 후회할 것 같다. 나는 남은 2개월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살아야 한다. 작은 것에 귀 기울이고 자세히 살펴 보아야 겠다.

## ‘몰랐던 나를 발견하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나를 발견했다’ 라는 말을 사용한다.

혹시 그게 몰랐던 모습이 아닌 새로 형성된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형성시키는 중인듯하다. 여전히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달라지고 있다. 물론 청소년기만큼 환경으로 인해 극적인 변화를 보일 일은 없지만 확실히 난 새로운 모습과 가치관을 더해가며 기존의 것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

## 마태복음 7:3

YSD의 부족함, 팀원들의 실수가 계속해서 눈에 밟힌다.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 내 속에도 너무나 많은 결함과 결핍이 있으니 겸손해지자. 나도 다를 것이 없다. 모두가 함께 성장해가는 중이며 그 속도와 보폭은 각자 다르다. 속도가 느리거나 보폭이 좁아도, 혹은 잠시 멈춰 있더라도 틀린 게 아닌 다른 거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해지자. 또한 내 자신이 느릴 때에도 괜찮다며 위로해주자.

Thu



## 모순되고 싶지 않다, 꾸미려 하지 말자

가끔 내 행동과 발언이 나의 가치관과 모순돼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제 그렇게 모르는 척 어영부영 넘어가고 싶지 않다. 다시 한번 더 고민하여 앞으로의 언행을 고치던, 내 기존 가치관을 고치던 진실된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

내 목소리를 들으려 하자. 남에게 잘 보이려 포장했던 날들이 많았다. 왠지 나를 합리화시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괜찮다. 남과 (보통의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도, 생김새가 달라도, 의견이 달라도 괜찮다. 이게 나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거나 서로 다른 생각으로 건강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옆에 남으면 된다. 솔직히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난 여전히 인정받는 것과 소속감을 좋아한다. 아무리 절대적 내편이 어딘가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미움 받고 배척 받는 것은 두렵다.

## Ky Quang 파고다가 나에게 준 것\_2019.11.15

*Thu*

까룻과 함께 휠체어로 택시놀이를 했다. 옆에서 베나와 라라, 하이도 뒤쫓아 따라오면서 웃더라. 진짜 진짜... 잊지 않고 싶은 추억이다. 우웬은 요즘 나를 알아보는지 내가 가면 팔을 부르르 떨며 웃는다. 탕은 내가 "뽁뽁스!" 라고 부르면 씨익 웃는다. 라라와 베나는 와서 안긴다. 나는 이제 그곳을,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좋아한다. কিয়ং 안에서의 내 모습도 좋다. 내가 좀 더 유해지는 느낌이다. 정이 들수록 예정되어 있는 이별이 무섭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라, 우웬, 까룻, 프, 베나, 트, 탕, 하이, 통통이, 제이콥, 제이인, 쥘, 제이느영 모두 기억하고 싶고, 그 사람들 또한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찍은 사진이 없다. 12월은 시간을 내 같이 찍어야 겠다.



11월은 중간평가를 준비한 달이면서 되게 많은 곳을 놀러다닌 달이다. 그리고 11월을 보내고 나서 든 생각은 수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엄청 여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11월 이전까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바쁜 일상 속에 치여 살아서 차 한잔 마실 여유도 없이 달려왔던 것 같다. 중간평가를 진행해 오면서 각 멤버들마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각자 많이 바뀔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11월은 그냥 다른 달들에 비해서 쉼의 달이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지친 몸을 쉬게 했고 그리고 호치민에 와서 처음으로 호치민을 잘 돌아다녔다고 할 정도로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많이 알게 되 것 같다. 그리고 많이 놀러도 다닌 것 같다. 우리끼리 뽀찌 여행도 가고 워터파크도 가고 야시장에 가서 바람도 쐬 오고 등 많은 것들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다. 그리고 되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봐 왔고 매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곤 했다. 못 볼 것 같으면 일부러 불러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좋았던 것 같다. 팀원외에 더 인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한편으로 조금 아쉽기도 했다. 조금 더 빨리 내려왔으면 어땠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시간이 되게 아까워졌고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빨리 한국에 가서 생활하고 싶더라고 느꼈다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여기에 남아서 생활하고 싶더라고 느낀 적도 있었다. 항상 후회를 하며 살아온 것 같다. 지금 이 과정도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의 많은 곳을 더 가보고 싶어졌다. 한번 베트남에 알기 시작하니 다른 곳들은 어떻게 되어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해졌다.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거 같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녀서 많은 베트남현지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고 사귀고 싶다. 지금 드는 생각은 이렇게 지낼 수 있다면 내 5개월 베트남 생활에서 후회없이 지내고 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다.

Tuan



Continue to

DECEMBER



19기 베트남팀

강예진 김나은 원민석 조은솔 최인혁